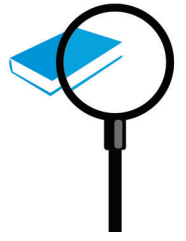


# 도시의 지나온 시간과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 모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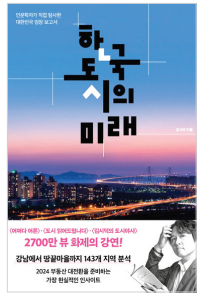
## 한국 도시의 미래

김시덕 지음

우리나라의 최고 화두는 인구 감소와 이와 연계된 지역 소멸이다. 출생률이 0.7%대에 이를 만큼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부족은 단순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취학 연령 감소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언급한 대로 지역 소멸은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당연히 결혼 기피 현상과 맞물려 있다.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높은 집값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도시 아파트 값은 보통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모든 문제와 연관된 중심에 도시가 있다. 어떤 이들은 도시를 부동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일견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도시는 땅과 집이라는 물리적인 요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제반 요소들이 정교하게 결합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 도시의 미래를 조망하는 책 '한국 도시의 미래'는 오늘의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개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와 지역의 지나온 시간과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도시문화학자이자 도시 답사가인 김시덕 박사다. 그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흔적과 자취를 추적하며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하고 예측해왔다. 고려대 일본 연구센터 HK연구교수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저자는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한다.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구가 줄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로, 자기 지역에서 인구가 많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감소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주의, 남성주의, 순혈주의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도심 바깥에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기존 도시를 압축도시(컴팩트시티)화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즉 지역을 도시·군 단위로 같은 면적으로 상정하면 도시 미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의식해 단위만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행정가와 달리 사람들은 행정구역에 넘나들며 선적(線的)으로 살아간다.



광주 광산구 수원지구와 운남동에 수변 풍경을 제공하는 풍영정천. 2023년 8월.

저자는 행정 단위로 지역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언급한대로 활동 반경이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이다. 행정 단위가 아닌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 것은 그 때문이다.

3대 메가시티는 대서울권, 동남권, 중부권으로 나뉜다. 먼저 대서울권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도, 충남 일부 도시부·공업지대를 포함한다. 동남권은 북한 공역에 안전한 콤포지트 지역이며 중부권은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기관이 집중된 곳이다.

저자는 100여년 개발 역사, 현지 답사를 매개로 3대 메가시티를 조망한다. 거미줄처럼 얽힌 도시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들여다본다.

6개의 소도시권은 다음과 같다. 대구-구미-김천 소권, 동부내륙 소권, 동해안 소권, 전북 서부 소권, 전남 서부 소권, 제주도로 나뉜다.

저자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이해관계도 관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3대 메가시티와 소권역권들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책에는 300여 개의 사진, 30여 개의 도시

개발 자료, 국내외 주요 기사, 해외 토크 등도 담고 있어 보는 맛, 읽는 맛이 준다.

저자는 "국토가 좁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압축 도시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이러한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레스트북스·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AI와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

타비타 골드스우브 지음, 김소정 옮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기술의 발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 강요한다. 신기술은 모두 양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신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AI다. AI는 매 순간 변하고 있으며 또한 무궁무진하다. 사람들은 AI를 일상에서 즐겁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혹은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AI 개념을 비롯해 역사와 작동 원리,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AI와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은 AI 세상에서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영국 정부의 AI자문위원회 회장, 영국의 대표 기술 지식 네트워크 코그니션의 공동창업자인 타비타 골드스우브다.

저자는 "AI세계를 구성하는 복잡한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들을 모두 응축해서 설명하는 일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 책은 AI세계를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럭저럭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알고리즘은 온라인 접속에 중독이 될 수 있게 시스템화 돼 있으며 장시간 그것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질병 진단이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 등은 AI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아마 이렇게 요약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적절한 기술을 정착하는 것이다."

〈해나무·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SF는 고양이 종말에 반대합니다

김보영·이은하·이서영 지음

서울 북쪽 외진 곳에 자리한 과학 전문 책방 '모모'. SF작가 '신작가', 손녀에게 선물할 책을 사러 들른 '노학자', 사회 활동가 '한단걸', 책방 아르바이트생 '정직원', 그리고 '백설기'와 '양갱' 고양이 두 마리가 황사와 강풍으로 책방에 고립된다.

고양이 별 고향에서 온 백설기는 인간에게 실망한 나머지 호위무사 양갱을 비롯한 무리를 이끌고 자구를 떠날 계획을 세운다. 이를 알아챈 네 사람은 백설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마다 전문 분야를 살려 티키타카 대화를 시작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김보영,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하, 작가이자 사회활동가인 이서영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중 각각 신작가, 노학자, 한단걸로 캐릭터화된 이들은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SF를 둘러싼 독자들의 질문을 모아 논제를 정하고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를 재구성해 소설처럼 엮었다.

책에는 성별이분법의 허상, 장애와 정상성의 경계, 가상현실 속 위계성의 문제 등 묵직한 이야기들이 수많은 SF 작품과 대화 속에서 펼쳐진다.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사이언스 픽션(Science Fiction)이 사이언스 팩트(Science Fact)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꼭 다뤄야 할 쟁점을 찾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며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있다.

2019년에 출간된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 후속편 격 이야기로, 작품에서 언급되는 '서기자', '상덕', '공순', '봉봉'은 전자 속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저자는 전작을 읽지 않고 읽어도 무방하지만 함께 읽으면 더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지상의책·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김우성 지음

생태학에는 니체라는 개념이 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 내부에서 생물이 차지하는 지위를 뜻하는 니체(Niche)는 한 생명이 먹이사슬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생태 자리'를 의미한다. 가령 송골매가 숲 어 위라거나 가젤이 표범 아래라는 식인 것.

그중 인간의 생태 자리는 어디일까. 지구의 정점에 군림해 온 인간의 니체는 기후위기와 사회 갈등, 환경 파괴와 저출산 속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이 타 종들의 맨 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사실이 아니라는 위기감은, 공교롭게도 니체의 해체적 사유와도 접맥한다.

기후 위기부터 사회 갈등까지 사회 위기의 해답을 숲에서 찾는 책이 나왔다. '생태 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은 서울대 산림과학부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생물지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우성이 퍼낸 숲 활동가의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는 숲이 주는 이타심에 매료돼 지역으로 내려와 숲과 마을을 살리기 위해 생태 활동을 지속했으며, 현재는 자연과공생연구소 소장을 맡을 만큼 자연에 대한 애정이 크다.

"알면 사랑한다."는 생태학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붉은머리오목눈이라는 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이 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이 작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덩굴과 키 작은 숲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책은 어떤 대상과 가까워지려거든 일단 그 자체에 천착하기를 권한다. 그 예로 자연을 드는데 우리가 곁의 자연을 새, 풀 등으로 범박하게 부르거나 '붉은머리오목눈이'나 '여귀풀' 등으로 명명할 때 근원적인 애착까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Planet03·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